총무원장 선출제도 종도의견 듣는다

〈조계종〉

선출제도개선특위 첫 회의, 추가위원 추천
종도 신청 받아 회의서 의견 개진 가능케

지난 3월 조계종 제208회 임시회서 구성된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종도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차 회의를 개최, 종회의원 외 5명의 추가 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현재 특위는 위원장 초격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장명 · 덕조 · 화림 · 만당 · 선광 · 화평 · 일감 · 묘주 스님과 기획실장 주경 스님으로 구성됐다.

이날 특위는 추가 위원으로 교구본사 주지 · 율사 · 교육아사리 각 1인을 추천받기로 했다. 또 직선제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목종 스님과 젊은 세대 의견을 개진해줄 광주 문빈정사 법선 스님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 총 15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일감 스님을 간사로 선출했다.

특위는 또 '종도의 소리(가칭)'를 통한 다양한 선출제도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매 회의에 2명 정도 초청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신청자격과 방법은 사무처에서 마련한다. 단 징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원회가 아닌 분야별로 5명씩 위원을 나눠 집중적인 연구에 나설 전망이다.

본사주지 · 율사 포함
15인으로 위원 구성
제도 변천사 분석도

아울러 총무원장선출특위는 활동시한이 후반기 종회까지 주어진 만큼 장기간 논의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직선제와 간선제에 구분을 두지 않고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선거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천사를 돌아보고, 10여 년간 이어져온 입법과정을 분석하기로 했다.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위는 더 나은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종도의견을 접수해 회의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서는 직선실현대중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허정 스님을 위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스님이 과거 직선제특위 위원들을 정유십적(丁酉十賊)으로 지칭한 바 있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원장 초격 스님은 "(직선대중공사가) 제도권에 들어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직선제특위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일에 대한 해명도 한 번쯤 들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 애종심으로 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선광 스님은 "그분들의 뜻은 가상하고 종단과 불교계를 염려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내 의견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부정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 정유십적 명단을 만드는 등 자기 생각과 배치된다고 누군가를 매도해선 안 된다"고 염려했다.

화림 스님도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 좋겠지만 회의하다보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다시 종단이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된다"며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사회원로들 "명진 스님 징계 철회하라"

조계종 호계원 "절차 적법, 명진 스님 자숙하길"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 대한 조계종 호계원의 제적 징계와 관련, 시민사회원로들이 이례적으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가칭)'은 5월 31일 서울 혜화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진 스님 승적박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해 김중배 前 MBC 사장,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정지영 영화감독,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권영길 前 민주노동당 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최병모 前 민변 회장 등 사회각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고은 · 신경림 시인 등은 개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지만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40여 명의 원로들이 함께한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백기완 소장은 "명진 스님이 승적박탈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탄압을 받았다. 명진 스님은 일생을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다. (조계종은) 이번 결정을 잘못했다고 국민에 사과하고, 명진 스님 승복을 다시 입혀드리는 절차를 갖기 바란다"면서 "종교 내부 문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신독재가 종교계에도 침입됐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백 소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절집과 싸우자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모임은 명진 스님 제적 징계가 촛불민심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이 천지를 밝히는 이 역사의 전환기에 명진 스님의 승적 박탈은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짓"이라며 "이명박이 명진 스님을 절에서 쫓아낸데 이어 이참엔 불교에서 쫓아냈다. 피눈물의 역사 전진에 대한 마구잡이 칼질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계종 호계원은 5월 30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명진 스님은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을 비방하는 등 비승가적이며 비이성적인 언행을 자행해왔다"면서 "총 4차례의 출석 공고에 응하지 않고, 재심 청구 기회마저 포기했다. 마치 일방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외부에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인과의 업보가 크고 무거운 줄 알아서 스스로 자숙과 참회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구성원들이 5월 31일 기자회견서 "승적박탈을 철회하라"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승가교육 진흥에 마음을 보탭니다"

한마음선원, 교육원에 1천만 원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6월 1일 조계종 교육원에 승가교육 진흥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 교육부장 진각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을 대신해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현응 스님은 "대행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선양하시기 위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승가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혜수 스님은 "앞으로도 종단 승가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성민 기자**

신행혁신 위해 〈불교입문〉 전면 개정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재편찬위 구성해 편찬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신행혁신 운동을 배가하기 위해 신도기본교육 교재인 〈불교입문〉을 전면 개정했다. 간화선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하고, 수행일지 및 청규 등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정된 〈불교입문〉은 조계종 신도기본교육이 도입된 1996년 이래 매년 2만권 이상 판매되는 불교계 대표 서적으로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6000여 명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불교 입문서로 가장 선호하는 서적이다. 2012년 개정판이 나왔지만 다소 딱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포교원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신도교재편찬위원회(위원장 일문)를 구성, 편찬을 5년간 준비해 왔다. 편찬위원으로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교수아사리 정운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연구원, 목경찬 교수 등 포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다양한 수행법 · 청규 담아
불교 가치관도 알기 쉽게

총 11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교재와 확연히 다른 점이 드러난다. 개정 전 〈불교입문〉이 사찰예절과 기본교리 등을 전면에 배치한데 비해 개정판은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와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등 불교에 대한 불자들의 고민을 담았다. 사찰예절과 등은 부록으로 뒤쪽에 배치했다.

각 이론 설명뿐만 아니라 주안점도 친절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연기법의 경우 초심자의 시각에서 여러 각도로 조명하며, 현실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무아인데 왜 윤회하는가' '왜 천도재를 지내나' '사찰의 의미' 등 불교용어나 불교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포교원이 추진하는 신행혁신운동 '붓다로 살자'와 연계해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한다. 실천과정으로 보살도의 삶을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신해행증의 '증'을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보다 현실 속에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풀이해 새로운 신행관을 내세웠다는 특징을 지닌다. 책 가장 뒤에는 포교원이 공표한 신행청규와 공동체 청규도 담아 생활속 수행을 장려한다.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불교입문〉은 불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으로 그동안 시대 요구에 따라 책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행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개인적 수행을 회향, 실천하는 것을 책 내용에 담고자 했다. 이번 개정된 불교입문을 보고 불교가 박제화 된 종교가 아닌,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종교임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春 템플스테이' 외국인 '역대 최다'

6058명 중 43.3% 기록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실시하는 '여행주간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화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87개 사찰에서 열린 '봄 여행주간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에 외국인 2632명을 포함해 총 6058명이 다녀갔다고 6월 1일 밝혔다.

이는 예상 목표였던 체험인원 5000명을 21% 초과한 수치로, 특히 외국인 참석비율이 43.3%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 참석비율은 지난 여행주간 행사 중 역대 최대다. 앞서 지난해 가을 여행주간에는 21.5%, 봄에는 37.3%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앞으로 계절별 ·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올해 가을 여행주간(10월 21일~11월 5일)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해 서버와 온라인 결제시스템도 확충한다.

황명선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는 새롭게 다가가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나라 재방문 의사를 이끄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8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국제 최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사찰 등에서 최면학 강의 및 초청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 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 · 빙의 등

KBS 굿모닝 대한민국/ 무한지대-큐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무한걸스
SBS 미워도 다시한번 JTBC 부모 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TV/방송 다수 출연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중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매월 첫주 목요일 개강 – 1회 무료 수강 후 결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 원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생 퇴행 요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전생이라는 기억 속에서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의식의 틀을 재편성 함으로써 문제 해결은 물론 통찰력을 높여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 것일까?

빙의된 사람은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심심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행동, 괴벽, 정서불안 등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경우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인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영가 장애가 아닌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망상 빙의나 다중인격과 같은 빙의현상도 올바로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사찰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문제/ 분노 조절
마음의 상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스포츠 선수 기록 향상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전생요법/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